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tsc@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윤 정부 장 · 차관과 대통령실 출신 후보 25명 주요 논란 · 의혹 정리 자료 발표
날 짜 2024. 03. 22. (별첨 포함 총 13 쪽)

보 도 자 료

유권자가 알아야 할

윤 정부 장·차관·대통령실 출신 총선 후보자 정보

장 · 차관과 대통령실 출신 후보 26명 주요 논란 · 의혹 정리 자료 발표
재임기간 짧은 장 · 차관, 수행 업무 검증 안 되는 대통령실 인사 다수

1. 참여연대는 오늘(22일) 유권자가 알아야 할 윤석열 정부의 장 · 차관과 대통령실 출신인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26명에 대한 주요 논란과 의혹 등의 정보를 정리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 또는 그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공천을 신청한 전직 장 · 차관 17명과 대통령실 출신 40명 등 총 57명 중 공천이 확정된 전직 장 · 차관 11명(장관 7, 차관 4)이며, 대통령실 출신 15명(수석 4, 비서관 6, 행정관 5)을 대상으로 조사해 정리했다.

[표] 윤석열 정부 장 · 차관과 대통령실 출신 22대 총선 후보 공천 현황 통계 (단위: 명)

	총계	장 · 차관			대통령실			
		장관	차관	소계	수석	비서관	행정관	소계
계	57	9	8	17	4	9	26	40
공천	26	7	4	11	4	6	5	15
낙천	31	2	4	6	-	3	22	25

2.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장 · 차관 11명으로는, ▲통일부 본연의 업무에 어긋나는 정책을 펼치고 업무 중 가상자산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돼 비판을 받은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서울 용산), ▲친일반민족행위 옹호 발언을 쏟아내며 윤석열 정부의 역사왜곡

시도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서울 강서 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사법부 판결을 부인하고 '제3자 변제'를 발표한 것을 비롯해 '외교참사' 논란을 거듭 불러 온 박진 전 외교부 장관(서울 서대문 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고, 전세사기 사태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실상 책임 방기해 왔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인천 계양 을),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한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올라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충남 천안 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내놓은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부산 중구 · 영도), ▲감세 정책 추진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핑크' 사태를 빚은 데다 공공임대주택과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을 키운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구 달성), ▲임명되자마자 원전 육성 · 수출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 했던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경기 수원 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던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부산 북구 을), ▲총선 출마를 위해 임명된 지 5개월여 만에 사임해 논란을 빚은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강원 원주 을)에 대한 주요 논란과 의혹을 담았다.

3.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미래 후보로 나서는 대통령실 인사로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영상을 보도한 MBC 앞 관제 시위를 부추기고,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특정인의 당대표 출마를 자제토록 종용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공개돼 파장을 부르고 재임 중에 출마할 지역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펼쳤다는 논란으로 고발된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충남 홍성 · 예산),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과 관련해 해명 자체가 논란이 되고, 해외기업 주식 보유 관련 이해충돌, 경기도지사 후보 때 재산 축소 신고해 논란이 됐던 김은혜 전 홍보수석(경기 성남 분당 을), ▲고용노동부의 '주 69시간' 근로기준법 개악과 교육부의 '만 5세 취학' 학제 개편 등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 정책 난맥상의 책임론과 함께,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정책 발표를 공개 부인하면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를 막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을 부른 안상훈 전 사회수석(국민의미래 비례 16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행사에 관여한 의혹으로 고발돼 공수처 수사대상인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 · 영양 · 봉화), ▲김건희 여사 개인의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대통령실이 수행하는 데 관여한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 갑), ▲윤 대통령의 측근인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실패 책임이 있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경기 용인 갑) 등으로 총 15명에 대한 주요 논란과 의혹을 담았다.

4. 과거 총선과 달리 유례가 없을 만큼 대통령실 전직 직원들이 대거 공천을 신청했으나, 15명만이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21번)로 공천 받은 강세원 전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비롯한 전직 직원들, 특히 행정관들의 주요 이력이나 재임 중 수행했던 업무 등 직무와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들조차 제대로 공개·확인되지 않아서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한 사례도 꽤 있다. 이처럼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조사 대상인 후보자들에 관한 논란과 의혹에 대해 분석·평가해 발표해 온 참여연대의 기존 자료들은 물론이고, 국회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조사·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권자에게 후보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팩트시트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후 조사 대상 후보자들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나 사실관계 등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반영할 계획이다. 끝

▣ 별첨: [윤석열 정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출신 22대 총선 후보자 관련 논란·의혹 정리 \(3/22 기준\)](#)